

# “상상도 못한일...한국적 록음악 세계 인정 기뻐”

##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한국 뮤지션 최초 버클리 음대 명예박사 학위... “음악으로 인생 보낸건 운명”

“상상도 못했죠 제 음악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 음악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꿈에도 몰랐어요.”

30일 오전 C이저트 광흥창에서 만난 ‘한국 록의 대부’인 기타리스트 신중현(79)은 최근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한국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 “저로서는 더 이상의 바램은 없을 정도로 결실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중현은 이날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적인 음악 교육기관 버클리음대 학위 수여식에서 로저 H 브라운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학교인 버클리 음대는 1971년 제2 전설 듀크 엘링턴을 시작으로 전방위 뮤지션 킨시 존스, 영국 글램록 스타 데이비드 보위 등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한 뮤지션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왔다.

이상준 C이저트재단 사무국장은 “버클리음대에서 신중현 선생님께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으며 “미국까지 알려진 선생님의 음악을 한국에 더 알리고 깊게 만들고 싶어서 작년 10월부터 한정앨범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신중현은 “세계적인 음악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고 했다. 학위를 받은 이후 현지에서 기타를 들고 연주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일한 업체가 준비가 안 돼 좀 더 과시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상심이 컸는데 신중현은 앞서 박정희 정권에서 문화 탄압을 받은 상징적인 존재로 통한다.

지난겨울 광화문에서 올려져진 ‘아름다운 강산’은 신중현과 엮인 2집(1974) 수록곡이자 이선희가 1988년 불러 유명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70년대 히트곡 작곡가였던 신중현에게 당시 청와대는 ‘각하(박정희)의 노래를 만들라’는 내용이 담긴 강권의 전화를 했다. 즉 박정희의 찬양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신중현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앞서 “아버지는 그런 노래는 만들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후 공화당이라버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만약 만들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도 한다. 그러나 재차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신중현의 작품들은 출몰이 금지곡

이 됐다. 당시 국민가요로 통하던 ‘미인’ 뿐만 아니라 김추자가 불렀던 ‘거짓말’ 등 많은 신중현이 만든 수심곡이 금지됐다.

신중현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음반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음악성이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정적이 (...) 잘못해서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정말 이런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제가 옛날 음악인이지만 그 때 당시(박정희 정권)로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녹음을 했어요. 후배들이 음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틀을 무너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기 음악성 특징을 살리면 이 시대에 적합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중현은 1955년 미8군 무대를 오가며 음악을 시작했다. 이후 1963년 국내 최초의 록 밴드 ‘애드회(ADDH)’를 결성, 한국 록음악의 창시자가 됐다.

지금까지도 가수들이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미인’ ‘꽃잎’ ‘봄비’ ‘님은 먼 곳에’ ‘아름다운 강산’ 등 수많은 히트곡들의 주인공이다.

버클리음대 브라운 총장은 신중현에게 기타를 현명한 유명 기타 브랜드 ‘펜더’의 제품 전략가 리처드 맥도날드의 말을 인용, “절대적인 전설이자 끊임없이 발전하는 예술가라고 했다. 또 “고난도의 기타 기교를 가지고 1960년대 사이키델릭 록부터 1980년대 파워 팝까지 아울러왔다”고 부연했다.

C이저트재단(이사장 이재현)이 대중음악 지원 프로그램 ‘튠업’에 선정된 젊은 뮤지션들과 함께 만든 신중현의 한정앨범 ‘신중현 디 오리진(THE ORIGIN)’ 역시 그의 진가를 입증하는 앨범이다.

1974년 발매된 ‘신중현과 엮인들 1집’에 대한 한정 앨범이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5음계를 이용해 한국적인 멜로디를 서양 하드 록에 적용했다. 그루브하면서도 시원한 하드록의 진행이 듣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평을 받는다. 당시 한국 총 인구수였던 3000만의 노래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번에는 ABTB가 ‘생각해’, 아시안체어 샷이 ‘그 누가 있었나봐’, 블루퍼프리카가 ‘긴긴 밤’, 남메이리이정아 팀이 ‘나는 너를 사랑해’, 포헤르츠가 ‘저 여인’ 등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수록했다.

뮤지션 정재일이 프로듀싱한 곡인 ‘아름다운 강산’은 스페셜 트랙으로 삼입됐다. 앨범의 성격을 잘 보여주면서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곡은 역시 1번 트랙 ‘미인’이다.

편곡자 양시은은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신중현은 이날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적인 음악 교육기관 버클리음대 학위 수여식에서 로저 H 브라운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광장히 중요한 곡인 ‘미인’을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편곡으로 만드는 일은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한정 앨범 자체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겸손한 신중현은 “1973~1974년은 세계적으로 록 붐이 일어났고 하나의 사명감이 들었다”며 “록이라는 장르가 어떤 음악의 흐름이든보다 세계적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고 떠올렸다.

한국적 록의 뼈대를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록 음악이라는 것은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자기네 나라 문화를 그 음악에 얹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교류하는 음악성이 있다 보니 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한국적 록 음악을 한 것이 ‘신중현과 엮인들이었죠’라고 말했다.

신중현은 이번 앨범에 대해 감작 놀랐다

고 했다. “신중현과 엮인들의 음반은 한국적인 록에 대한 아성을 품고 만든 음반인데 곡이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났다”며 “역시 좋은 후배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너무 좋았다. 앞으로 이런 형식의 앨범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악으로, 인생을 보낸 건 운명이에요. 천직이죠. 하늘이 준 일이니,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음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음악을 떠나면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중현 디 오리진’ 음원 파트는 31일, 파트2가 6월7일, 전체 앨범이 같은 달 14일 등 순차적으로 발매된다.

그날 21일에는 C이저트 광흥창에서 한정앨범 발매 기념 공연이 열린다.

/뉴시스



### 김옥빈 주연 ‘악녀’ 해외 136개국에 판매

화 ‘악녀’(감독 정병길)가 해외 136개국에 판매됐다. 30일 배급사 뉴(NEW)에 따르면, ‘악녀’는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스페인·대만·필리핀·스칸디나비아 등 136개국 배급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 배급사 와일드 번치는 “강렬한 액션시퀀스에 시선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고 했고, 미국 배급사 윌고USA는 “강렬하고 파워풀한 김옥빈의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또 영국 배급사 에로우윌름은 “경이로운 기술적 성과를 맞게 만드는 액션 시퀀스”라고 했다.

‘악녀’는 28일 폐막한 제70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스 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외신의 호평을 끌어내기도 했다. 영화는 킬러로 길러진 여성이 국가 비밀 조직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옥빈·신하균·성준·김서형·조은지 등이 출연했고, ‘내가 살인범이다’(2012) ‘우리 액션배우다’(2008) 등을 만든 정병길 감독이 연출했다. ‘악녀’는 다음 달 8일 개봉한다.

/뉴시스



### ‘원더우먼’ 예매 순위 1위... 흥행 예고

DC코믹스의 새 영화 ‘원더우먼’이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원더우먼’(감독 패티 젠킨스)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4만3192명으로 예매 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예매 매출액은 3억5200만원, 예매 점유율은 28.8%다.

‘원더우먼’은 전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오는 ‘캐리비안의 해적:죽은 자는 말이 없다’(2만8501명)보다 예매 관객이 약 1만5000명 가량 많아 이변이 없는 한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개봉일 31일).

‘원더우먼’은 지난 2013년부터 DC코믹스가 본격적으로 내놓은 히어로 영화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에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원더우먼(갈 가드)의 탄생을 다룬다. 세상과 단절된 섬 데미스키라에서 살아가는 전투 부족 아미존의 공주 다이애나(갈 가드)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원더우먼이 되는 과정이 담겼다.

갈 가드·크리스 파인·로빈 라이트·데이비드 툴리스 등이 출연했고, ‘몬스터’(2003) 등을 만든 패티 젠킨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